

魚得江이 명명한 <山陰十二詠>의 문화공간

김 세 호*

- I. 머리말
- II. 어득강의 한시와 <산음십이영>의 의미
- III. <산음십이영>의 문화공간
 - 1. 어득강이 경영한 製錦堂
 - 2. 黑石村을 개명한 烏石村
 - 3. 鏡城江의 명승 향유
 - 4. 선대의 기록을 전승한 獨女巖
 - 5. 왕릉의 역사 고증 시도
 - 6. 세속의 설화에 근거한 智谷寺
- IV. 맺음말

국문초록

魚得江(1470~1550)은 조선 전기 문학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이룬 詩人의 한 사람이다. 평생의 저작을 담은 『灌圃詩集』이 전하고 이에 주목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그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어득강이 지은 한시에는 경영 및 중수를 기념해 지은 작품이 다수 확인된다. 이는 당대 시인의 명성을 바탕으로 대부분 요청 등에 의해 창작된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山陰縣監 시절 지은 <山陰十二詠>을 통해 어득강의 한시가 지닌 문화사적 의의를 확인하

* 경상국립대학교 한문학과 조교수 / shils@naver.com

고자 하였다.

어득강의 <산음십이영>은 산음의 경물 12개를 대상으로 지은 연작시이다. 산음의 대표적인 山川·樓亭古跡 등의 명승을 비롯하여 자신만의 기준을 바탕으로 주목한 공간을 제재로 삼았다. 이 글에서는 그중 <산음십이영>의 특징이 드러난 몇몇에 주목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이 경영한 건물, 인근의 마을을 개명한 사례, 산음 일대 명승의 향유, 선현의 기록 전승 및 전파, 유허의 역사적 고증, 문화공간의 명명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확인된다.

<산음십이영>은 製錦堂 및 換鵞亭 등에 걸려 후대 문인들에 의해 거듭 차운되었고 산음 지역의 문화공간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회자되었다. 단지 하나의 작품이지만 어득강이 지닌 역사적 위상이 명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어득강의 저작이 지닌 가치는 <산음십이영>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에서 고루 드러난다. 물론, 이는 개인의 시문에 집중하지 못한 한계를 내재하지만 역사에서 그를 기억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이기에 충분하다. 향후 어득강의 연구가 더욱 다양한 방면에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製錦堂, 鏡湖, 獨女巖, 仇衡王陵, 智谷寺

I. 머리말

魚得江(1470~1550)의 본관은 咸從, 자는 子游, 호는 灌圃 등이다. 魚孝源의 손자이자 魚文孫의 아들로 태어났다. 1496년(연산군 2)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내직과 외직을 두루 역임했다. 당대 시문에 뛰어나 조선 전기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는 인물의 한 사람으로 기억된다. 평생의 漢詩와 산문 등 여러 저술을 남겼지만 오늘날 한시만 전하여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성과가 도출되었다.¹⁾

어득강의 『灌圃詩集』에는 평생의 저작이 담겨 있다. 특히 자신이 머물고 경유한 장소를 대상으로 읊은 시문이 다수 전한다. 몇몇은 연작시를 통해 다양한 경물을 읊었고 이는 어득강의 시재가 드러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당대 및 후대 문인들에 의해 거듭 차운되고 회자되며 문학사뿐만 아니라 문화사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했다. 어득강의 시에 남다른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이 글에서는 어득강이 지은 〈山陰十二詠〉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금의 경상남도 산청군 일대의 경물을 연작시로 읊은 작품이다.²⁾ 『관포시집』의 처음을 장식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산음을 읊은 전형이 되어 많은 차운시가 전한다. 한편, 『관포시집』에는 어득강이 지닌 문화사적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여럿 보이니 그중 〈산음십이영〉을 통해 이와 같은 단서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어득강의 시문을 바탕으로 한 문화사적 연구의 가능성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 1) 어득강의 생애와 한시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재남, 「魚得江의 雙溪八詠과 그 차운시에 대하여」, 『지역문화연구』 1, 경남부산지역문화회, 1997; 최재남, 「어득강의 삶과 시의 특성에 대한 일고」, 『한국한시연구』 11, 한국한시학회, 2003; 김승룡,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 시세계의 한 국면」, 『한국고전연구』 2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정우락,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 시에 나타난 ‘물’의 상상력」, 『남명학』 22, 남명학연구원, 2017 등 참조.)
 - 2) 선행연구에서 어득강의 〈산음십이영〉에 언급된 명승을 다루어 많은 참조가 되었음을 밝힌다. (이종묵, 「경호강의 명승」, 『선비문화』 38, 남명학연구원, 2021, 179~192쪽)

II. 어득강의 한시와 <산음십이영>의 의미

어득강은 젊은 시절 여러 지방관을 역임했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1502년(연산군 8) 山陰縣監, 1508년(중종 3) 永川郡守, 1513년(중종 8) 咸安郡守, 1524년(중종 19) 興海郡守, 1532년(중종 27) 昆陽郡守 등을 지냈고, 이외에도 1536년(중종 31) 陝川郡守를 지낸 이력이 확인된다.³⁾ 어득강은 자신과 인연이 닿은 곳곳에서 시를 지었고 이는 보다 명확한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술된 시문 가운데 주목할 만한 특징이 감지된다. 누정 및 별서 등을 두고 지은 사례가 상당하거니와 특히 창건 및 중수 등을 기념하여 지은 시의 비중이 높다. 이는 어득강이 당대 명망 있는 시인으로 이름을 떨쳤음을 방증한다. 우연적 계기가 수반되지 않은 이상 대부분 요청 등에 의해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는 어득강의 시가 각각의 장소를 대표하며 후대에 거듭 차운되었을 여지를 제공한다.

현재 『관포시집』 등을 통해 확인된 창건 및 중수 등을 기념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연번	대상지	소재지	성격	기사명
1	竹亭	河東	金鉤의 별서	<題河東竹亭[縣監金鉤, 庚午武榜壯元]>
2	道士觀	山陰	鄭仁雄이 건립 관아건물	<題道士觀[山陰鄭使君仁雄, 既新換鵝亭, 起此觀於其西]>
3	雙溪寺 八詠樓	河東	쌍계사의 중건	<雙溪八詠[并序]>

3) 선행연구에 어득강의 생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많은 참조가 되었다. (정우락(2017) 참조) 이외에 함천군수를 지낸 이력은 金安國이 지은 1536년(중종 31) 시에 근거한다. (金安國, 『慕齋集』 권7, <魚子游罷官閑居, 近又出守陝川, 送人間訊, 戲寄.[子游名得江, 自號渾沌山人, 又號灌圃丈人]>)

魚得江이 명명한 〈山陰十二詠〉의 문화공간(김세호)

4	李希祖 新亭	咸安	李希祖의 별서	〈題巴山李善述新亭[名希祖]; 〈寄題新亭六絶 四絶已在本集, 題李善述新亭是也〉
5	西清軒	金海	宋瑾이 건립 관아건물	〈題盆城西清軒[知州宋瑾重新之, 尋以武略陞堂上, 拜鍾城府使]〉
6	望嶽樓	咸陽	安愔가 중수 관아건물	〈題咸陽望嶽樓[是年以輿地勝覽撰集, 自興州抵咸陽, 安使君愔重新此樓請題]〉
7	西軒	清河	金自淵이 중수 관아건물	〈題清河西軒[縣監金自淵重新, 極爲敞豁]〉
8	固城 學舍	固城	새로 경영한 學舍	〈書固城重新學舍〉
9	氷玉亭	鎭川 (管州)	鄭宙의 별서	〈氷玉亭[鄭仁同宙作亭鎭川]〉
10	東軒	泗川	成世良이 중수 관아건물	〈泗川新軒, 爲主人成漢卿賦[名世良]〉
11	釣月堂	晉州	河就演의 별서	〈釣月堂[晉之秀才河就演, 起堂於其第之北, 余名之以釣月]〉

이상은 어득강이 경영 및 중수를 기념해 지은 것들이다. 스스로 경영한 대상은 제외하고 『관포시집』에 수록된 순서에 의거하여 제시했다.⁴⁾ 몇몇 상량문 등은 배제한 채 한시의 사례에 국한한 결과이다.⁵⁾ 일반적인 기문이 아니건만 한시만으로도 그 숫자가 상당하다. 다만 문집 내 시문의 배열이 시대순과 어긋난 사례가 다수 간취되어 정확한 창작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부분 청탁의 결과임이 자명하니 이는 시로 문명을 떨친 위상을 방증하고 한편에서는 문화사적으로 남다른 위

4) 어득강은 스스로 경영한 건물에 시를 지어 기념하기도 했다. 산음의 製錦堂과 곤양의 臨院亭 등이 확인된다. (魚得江, 『灌圃詩集』, 〈臨院亭[昆之城東, 芟繁蕪, 起新亭]; 〈製錦堂成, 以四十字爲記〉)

5) 어득강은 曹潤孫이 경영한 冥鴻亭의 상량문을 지어주었고 이는 조선 전기 대표적인 상량문의 하나로 거듭 회자되었다.

상을 견지하였음을 대변한다.

필자가 판단컨대, 어득강이 지은 한시 가운데 <산음십이영>은 이러한 성취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1502년 산음현감을 지내던 시절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산음의 경물을 12개의 제재로 삼아 연작행의 형태로 노래했고 일부는 세주를 통해 그 의미를 밝혔다. 『관포시집』의 처음을 장식하는 작품으로 이후 여러 문인들에 의해 거듭 차운되었다.⁶⁾ 산음현감은 어득강이 지방관으로 처음 부임한 지역이다. 다소 젊은 시절에 해당하지만 그만큼 후대에 미친 영향력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어득강이 명성을 얻게 된 상징적인 작품일 수 있다. 어득강의 문학적 역량이 검증된 것은 물론이고 아울러 산음의 문화사를 돌아보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한다.

다음은 어득강의 <산음십이영>에 차운하거나 이에 영향을 받은 사례이다.

연번	저자명	생몰	서명	기사명	내용
1	金世弼	1473 ~1533	『十淸集』 권1	<山陰換鵝亭, 次板上韻九首>	
2	李荇	1478 ~1534	『容齋集』 권7	<次韻魚子游山陰十二詠>	
3	李敏求	1589 ~1670	『東州集』 권3	<山陰八詠>	제재는 같으나 운자는 다름.
4	俞泓	1524 ~1594	『松塘集』 권1	<次製錦堂韻>	7수만 읊음.
5	姜大延	1606 ~1655	『湖上世稿』 권3	<次換鵝亭魚灌圃李容齋十二詠>	
6	李箕鎭	1687 ~1755	『山淸郡誌』 舊編題詠	<換鵝亭吟詠>	

6) 『관포시집』의 시문이 시대순으로 배열되지 않은 현실에서 <산음십이영>이 문집의 시작에 배치된 것은 그 영향력에 주목한 결과로 이해할 만하다.

7	蔡濟恭	1720 ~1799	『樊巖集』 권3	〈製錦堂八詠〉 ⁷⁾	다른 경물과 다른 운자를 취함.
8	李瀾	1725 ~?	『山淸郡誌』 舊編題詠	〈換鵝亭吟詠〉	
9	李晩著	1814 ~1875	『山淸郡誌』 舊編題詠	〈換鵝亭吟詠〉	
10	閔致亮	1844 ~1932	『稽樵文集』 권1	〈謹次魚灌圃十二詠〉	
11	李中鶴	미상	『山淸郡誌』 舊編題詠	〈換鵝亭吟詠〉	

어득강의 〈산음십이영〉은 조선 전기 산음 지역에 미친 영향력을 증명한다. 그 내용은 현판으로 제작되어 산음의 대표적인 누정을 장식했고 산음에 이른 문인들은 이 시를 보고 차운시를 남겼다. 아울러 다수의 차운시가 창작된 과정은 어득강의 시가 지닌 작품성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어득강의 〈산음십이영〉은 차운을 통해 거듭 회자되며 지역 내에 문화사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각각의 대상지는 시간의 흐름에도 기억되며 전승을 통해 생명력을 이어갔다. 어득강이 읊은 12개의 경물에는 이미 지역의 상징으로 회자되는 곳과 더불어 개인적인 시각이 담긴 곳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지역 내 정보를 담아낸 것 또한 특기할 만하다. 어득강의 〈산음십이영〉으로 인한 각각의 장소가 지닌 의미를 돌아보는 것에 의미가 없지 않다. 이하, 어득강의 〈산음십이영〉 가운데 그 영향력과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경물을 선정해 역사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산음십이영〉의 문화사적 의미를 밝히고 더 나아가 어득강과 관련한 문화공간 연구의 가능성을 파악한다.

7) 채제공의 〈製錦堂八詠〉은 어득강의 시를 차운한 작품은 아니고 그 대상도 단성의 신안강 일대를 배경으로 한다. 다만 산음의 제금당에서 지은 것은 분명하기에 어득강의 〈산음십이영〉의 영향하에 지어진 작품의 하나로 제시했다.

Ⅲ. <산음십이영>의 문화공간

1. 어득강이 경영한 製錦堂

製錦堂은 산음의 관아에 경영된 건물이다. 어득강이 산음현감을 지내던 시절 직접 경영한 것으로 추정된다.⁸⁾ 어득강은 제금당이 완성되자 五言律詩 40자로 기문을 대신했다. 제금당 주변에 매화와 소나무를 심어 장식하였으니, 林逋와 趙子岩의 고사를 취한 결과라고 하였다.⁹⁾ 임포는 西湖에 은거하여 매화를 사랑했고, 조자암은 邵州를 다스리며 郡齋에 梅竹을 심고 靑白堂이라 편액한 인물이다. 산음이 중국 浙江의 지명임에 착안하여 고사를 취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어득강은 <산음십이영> 1수에서 製錦種梅를 주제로 시를 지었다.

稚梅手自移,	어린 매화 손수 스스로 옮겨 심으니
猶及見花時.	오히려 꽃 피는 시절 보는 것 같네.
只有一堂錦,	다만 하나의 당에 비단 있을 뿐이라
慚非學製宜.	서툰 이에게 알맞지 않아 부끄럽구나. ¹⁰⁾

어득강은 제금당을 짓고 매화를 심어 이를 상징으로 삼아 시를 지었다. 제금당은 글자 그대로 비단을 마름질한다는 말이니 지방관이 고을을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左傳』「襄公三十一年」의 기사에, 子皮가 경험이 없는 尹何에게 고을을 다스리도록 하려 하자 子產이 좋은 비단은 마름질을 배우는 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데에서 유래한다.¹¹⁾ 이

8) 어득강의 제금당 시는 『관포시집』의 후반부에 수록되어 어득강이 재임 시절 지은 건물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다만 『관포시집』의 시문이 시대순으로 배열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선행연구에서도 이를 어득강이 경영한 건물로 추정하였기에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음을 밝힌다. (이종목, 앞의 글(2021), 182쪽)

9) 魚得江, 『灌圃詩集』, <題道士觀[山陰鄭使君仁雄, 既新換鵝亭, 起此觀於其西]>.

10) 魚得江, 『灌圃詩集』, <山陰十二詠> 1수 製錦種梅.

11) 『左傳』, 「襄公三十一年」, “子皮欲使尹向為邑. 子產曰: “少, 未知可否.” 子皮曰: “願,

에 어득강은 마지막 4구에서 자신이 좋은 수령이 되기에 부족함을 고백했다. 그 이름에서 산음현감의 관사 또는 집무실의 성격을 지닌 곳이었는지 모른다.

어득강이 제금당을 경영한 이후, 제금당은 산음의 또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¹²⁾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新增 기사에 제금당의 존재가 새로 기입된 사실이 보인다.¹³⁾ 어득강이 경영한 이후 산음의 대표적인 누정으로 이름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 俞泓은 제금당의 시에 차운시를 남긴 적이 있다. 이때 어득강의 <산음십이영> 7수에 차운한 작품이 남아 전하니 아마도 제금당에 어득강의 시가 걸려 있었던 것 같다.¹⁴⁾ 어득강 이후 <산음십이영>이 제금당을 통해 거듭 전한 사실이 되는 지점이라 하겠다.

제금당은 매화와 대나무 외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했다. 任墮(1640~1724)이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青山雲盡月華生,	청산에 구름 사라지자 달빛 떠오르니
十里平湖似鏡明.	십 리의 평평한 강물 거울처럼 밝아지네.
北岸長松南岸竹,	북쪽 언덕 장송과 남쪽 언덕 대나무
悄然唯有子規聲.	고요한 가운데 그저 자규 소리만 들린다. ¹⁵⁾

1683년(숙종 9) 임방이 달밤에 제금당 왼쪽 산기슭에 올라 鏡湖를 굽어보며 풍경을 읊은 작품이다. 임방은 1680년(숙종 6) 산음현감에 임명되었다.¹⁶⁾ 경호는 산음을 끼고 흐르는 강물을 가리킨다. 고요한 정취를

吾愛之，不吾叛也。使夫往而學焉，夫亦愈知治矣。”子產曰：“不可。… 子有美錦，不使人學製焉。大官·大邑·身之所庇也，而使學者製焉，其為美錦不亦多乎？”

12) 선행연구에서도 산청에서 환아정과 함께 제금당의 명성이 기록치 않다면 그 존재에 주목했다. (이종묵, 앞의 글(2021), 182쪽)

13)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1 慶尙道, 「山陰縣」, <樓亭>, “製錦堂: 在公衙.” 본래 『동국여지승람』에는 二樂樓와 換鵲亭만 기록되어 있었으나 신증으로 道士觀과 제금당이 추가되었다.

14) 俞泓, 『松塘集』 권1, <次製錦堂韻>.

15) 任墮, 『水村集』 권3, <月夜, 登製錦堂左麓臨鏡湖>.

느낄 수 있다.

제금당은 이후에도 이와 같은 위상을 지속했다. 18세기 蔡濟恭은 부친 蔡膺一이 山淸縣監에 부임한 것을 계기로 제금당을 방문해 팔영시를 읊었다.¹⁷⁾ 1897년(광무 원년) 崔瑛民은 <龍山精舍雜詠>에서 어득강이 재임시절 지은 12영시가 환아정으로 옮겨진 사실을 언급하며 제금당의 역사를 회고했다.¹⁸⁾ 趙性家도 이에 차운해 제금당이 어득강에 기원한 공간임을 노래했다.¹⁹⁾ 특히 근대 전환기 어득강의 <산음십이영> 가운데 제금종매에 차운한 경우가 몇몇 확인되니 어득강과 제금당의 관련성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²⁰⁾ 제금당은 어득강이 창건한 건물로 기억되며 일제강점기까지 존속했고 <산음십이영>을 역사에 전한 공간으로 계승되었다.²¹⁾

2. 黑石村을 개명한 烏石村

어득강은 <산음십이영> 2수에서 烏石行春을 주제로 삼았다. 오석촌은 마을의 이름이고 행춘은 봄날 순시하며 農桑을 권면하고 백성들을 진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 세주에 “고을 서쪽 10리에 黑石村이 있다. 내가 王半山(王安石)을 본받아 고쳐서 烏石으로 삼았다.”라고 하였다.²²⁾

16) 『承政院日記』 肅宗 6년(1680) 10월 15일 11번째 기사.

17) 蔡濟恭, 『樊巖集』 권3, <製錦堂八詠>. 채제공의 시는 丹城 일대 경물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18) 崔瑛民, 『溪南集』 권4, <龍山精舍雜詠[并序]>, “製錦堂[魚灌圃宰邑時作有十二詠今移揭于換鵝亭].”

19) 趙性家, 『月皐集』 권5, <奉和崔溪南龍山雜詠[四十三首]> 製錦堂, “灌翁古可尋, 棲枳歎祥禽. 製錦十餘詠, 口碑豎士林.”

20) 韓愉, 『愚山文集』 권3, <登換鵝亭次魚灌圃十詠之一山陰>; 韓右東, 『厚菴遺稿』 권1, <登換鵝亭次魚灌圃十詠之一> 등 참조.

21) 鄭源鎬는 1930년 편찬한 『嶠南誌』에서 제금당이 존속한 사실을 기록했지만 1958년 李鍾雷가 편찬한 『山淸郡誌』에는 제금당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보인다.

22) 魚得江, 『灌圃詩集』, <山陰十二詠> 2수 烏石行春[縣西十里有黑石村, 余效王半山改爲烏石].

왕안석은 <烏塘>을 읊은 적이 있으니 지금의 江西省에 해당하는 곳으로 봄날의 경치를 읊은 작품이다. 고사에 기대어 지명을 고친 모습이라 하겠다.

어득강이 읊은 오석행춘은 다음과 같다.

茅屋皆臨水,	떠 집 모두 물을 굽어보고
桃花盡掩門.	복사꽃은 문을 모두 가리웠네.
籃輿烏石逕,	가마로 오석의 길 지나니
擬入武陵村.	무릉촌에 들어가는 듯하구나. ²³⁾

어득강은 오석촌으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경관을 그림으로 그려내듯 묘사했다. 물가에 자리한 초가집에 복사꽃이 만발하여 마치 陶潛이 <桃花源記>에서 묘사한 武陵桃源에 들어가는 듯한 정경이라 하였다. 앞서 세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오석촌은 고을 서쪽 10리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였다. 오늘날의 위치와 대조하면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 일대 공간으로 비정된다.

어득강이 본래 흑석촌이라 부른 지명은 壬辰倭亂과 丁酉再亂의 기록에 등장한다. 鄭景雲은 『孤臺日錄』에서 1593년(선조 26) 7월 왜적이 흑석리를 지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고 하였고, 1597년(선조 30) 11월 왜적들이 산음 흑석동에 진을 치고 있다는 내용으로 흑석촌의 지명을 거론했다.²⁴⁾ 이는 趙慶男의 『亂中雜錄』에도 보이니 이때까지만 해도 흑석촌의 이름이 주로 사용된 모양이다.²⁵⁾

반면, 조선 후기에 이르러 흑석촌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모두 오석촌으로 대체된다. 임방의 기사는 지명의 변화양상을 증거한다.

산음의 서쪽에 마을이 있으니 烏石里이고 시내가 있으니 烏溪이다. 이 시내는 동쪽으로 흘러 鏡湖로 들어간다. 시내를 따라 10리를 가면 春羅臺에 이른다. 남쪽

23) 魚得江, 『灌圃詩集』, <山陰十二詠> 2수 烏石行春.

24) 鄭慶雲, 『孤臺日錄』 권1 癸巳, 「秋, 七月」; 『孤臺日錄』 권2 丁酉, 「冬, 十一月」.

25) 趙慶男, 『亂中雜錄』 권3, 「丁酉[萬曆二十五年宣祖三十年]」.

에 安心寺로부터 오는 물은 紙渠로 그 물가에 紙村이 있기에 이름한다. 북쪽에 成佛山으로부터 오는 물은 堂渠로 그 물가에 신당이 있기에 이름한다. 두 물은 대를 감싸고 합쳐져 바로 깊은 못을 이루고 못으로부터 동쪽이 비로소 오계라 이름한다.²⁶⁾

임방이 지은 <春羅臺記>의 도입부로 春羅臺 일대 지리를 설명했다. 춘래대는 春來臺라고도 일컬어지는 곳이다. 曹植과 吳健 등의 고사가 전하는 곳으로 근대 전환기 春來亭이 들어서며 그 역사를 기념했다.²⁷⁾ 紙村은 지금의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지막리 지막마을을 가리킨다. 춘래대와 지막마을 등을 중심으로 오석리의 대략적인 위치를 거듭 가늠할 수 있다.

기존에 흑석으로 일컬어지던 이름은 어득강에 의해 개명되었고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흑석의 이름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오석으로 지칭한 사례만 확인된다. 오석을 중심으로 선영을 쓰거나 거주한 이들의 기록에서 흑석이 결국 오석으로 변화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어득강이 개명한 이름이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개창했다고 이를 만하다. <산음십이영>이 지닌 또 하나의 의의에 해당한다.

3. 鏡湖江의 명승 향유

오늘날 산청군 산청읍 서쪽으로 남강이 흐르고 이는 산청군 단성면을

26) 任埴, 『水村集』 권9, <春羅臺記>, “山陰之西, 有里曰烏石, 有溪曰烏溪. 是溪也東流, 入于鏡湖, 沿溪行一十里, 至春羅臺. 南有水自安心寺來者曰紙渠, 以其上有紙村故名, 北有水自成佛山來者曰堂渠, 以其上有神堂故名. 兩水抱臺而合, 卽成深潭, 自潭以東, 始名烏溪.”

27) 郭鍾錫, 『俛宇集』 권139, <春來亭記>. 춘래대는 선행연구에 자세하다. (이종목, 앞의 글(2021), 184~187쪽)

28) 『茅谿集』年譜, 「茅谿先生年譜」, “○五月丁母夫人吳氏憂. 時兵革方棘, 禮道壞缺, 而先生治喪持服, 無一事不自盡者, 人以爲難. 十月, 葬吳夫人于山陰縣西鶴陽山下烏石.”; 鄭載圭, 『老柏軒集』 권46, 「晦亭閔公行狀」, “癸酉九月十九日甲子卒, 享年七十二. 前數日, 力疾手書訓子孫帖以遺之. 越十一月乙卯, 葬于治西烏石里新沙負壬之原.”

거처 진주로 흘러간다. 과거 단성면 일대 남강을 新安江이라 불렀다면 산청읍 일대의 남강은 경호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조선 후기 경호는 換鵝亭과 어우러져 산청을 대표하는 산수의 하나로 평가된다. 이는 본래 환아정이 경호를 굽어보는 자리에 위치한데다, 환아정의 명성으로 함께 부상한 측면을 고려할 만하나, 그 시작을 보면 어득강에게서 많은 부분 촉발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어득강은 <산음십이영> 4수에서 鏡湖泛月을 읊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日夕乘舟去,	아침저녁 배를 타고 떠나서
宵分載月歸.	한밤중에 달을 싣고 돌아오네.
不知霜露重,	서리와 이슬 무거운 줄 모른 채
夜夜入秋衣.	밤마다 가을옷에 스며들게 하는구나. ²⁹⁾

어득강은 달이 뜬 밤이면 경호에 배를 띄워 船遊를 즐겼다. 경호는 역사에서 산음의 중요한 경물로 평가되지만 당시만 해도 환아정에서 굽어보는 하나의 경관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⁰⁾ 조선 전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산음현」 기사에 경호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반면 어득강은 가을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를 띄워 달밤을 만끽하고 돌아왔다고 하였다. 풍류의 실현으로 경호를 명승의 범주로 격상한 의의를 지닌다.

어득강 이후 경호는 산음의 대표적인 산천으로 거론되며 최고의 명승으로 인식되었다. 梁喜는 吳健의 제문에서 두류산을 마주하고 경호를 굽어보던 삶을 그렸고 이는 산음의 상징적인 경물로 자리매김한 세태를 보여준다.³¹⁾ 金奉祖는 부친 金大賢의 家狀에서 부친이 산음현감을 지내던 시절 경호와 환아의 승경을 사랑해 習池의 유람을 즐겼다고 하였

29) 魚得江, 『灌圃詩集』, <山陰十二詠> 4수 鏡湖泛月.

3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1 慶尙道, 「山陰縣」, <樓亭>, “換鵝亭: 在客館西, 俯瞰江流, 縣監沈潁建, 花山權攀取王右軍事名焉.”

31) 梁喜, 『德溪外集』 권8, 「祭文」.

다.³²⁾ 습지는 習氏 집안에 있던 園池로 중국 진 나라 山簡이 襄陽太守를 지내며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다는 고사에 유래한다. 경호가 환아정과 병칭된 또 하나의 사례이다.

그렇다면 경호의 선유는 어떠한 배경에서 행해질 수 있었을까. 조선 후기 宋時烈(1607~1689)의 <山陰縣換鵝亭記>에 그 단서가 보인다.

정자는 객관의 서쪽에 있으니 창건한 자는 沈璘이고 이름 지은 자는 權攀이다. 왜란에 불에 탔다가 증건한 자는 權淳으로 지금은 대개 그 세 번째로 바뀐 것이다. 정자는 무릇 13영이니 그 서쪽을 자르고 각으로 삼아 寫經閣이라 하였고 그 동쪽에 벽을 세워 관으로 삼아 凝香館이라 하였다. 그 편액은 모두 宜寧 尹舜舉 글씨이다. 물은 경호로 나루에 작은 배가 있고 하류에 긴 다리가 있다. 정자의 남쪽 모퉁이에 金陽鳳이 지은 道士館이 있고 동쪽 모퉁이에 다시 李士吉이 洗硯池 가에 작은 건물을 창건했다. 대개 정자는 현의 이름으로 인해 이름 지었고 그 나머지는 모두 정자로 인해 이름을 얻었다.³³⁾

송시열이 지은 환아정의 기문으로 환아정의 연혁과 인근의 경관을 요약한 부분이다. 전반부를 통해 환아정의 변천과 위상을 볼 수 있고 후반부의 경물 기록에 근거하여 일대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송시열은 환아정의 경물로 경호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나루에 작은 배가 있어 항시 배를 띄울 수 있었던 것 같다. 하류에 다리가 있다고 하였지만 나루의 배를 통해 경호를 왕래했을 것으로 짐작되고 아울러 이 배는 경호의 선유에 활용되었는지 모른다. 실제 <산음십이영>의 차운시 가운데 ‘경호범월’을 ‘鏡湖泛舟’로 고친 사례가 여럿 보인다.³⁴⁾ 어득강이

32) 金奉祖, 『鶴湖集』 권3, <先考朝奉大夫行山陰縣監府君家狀>.

33) 宋時烈, 『宋子大全』 권140, <山陰縣換鵝亭記>, “亭在客館之西, 創之者沈璘, 名之者權攀也. 燬於倭而重建者權淳也. 今則蓋其三易者也. 亭凡十三楹, 截其西爲閣曰寫經, 壁其東爲館曰凝香, 其扁皆尹宜寧舜舉筆也. 水曰鏡湖, 渡有小艇, 而下流有長橋焉. 亭之南隅有金陽鳳所建道士館, 東隅又有李士吉所創洗硯池上小構焉. 蓋亭因縣名而名焉, 其餘則又皆因亭而得名者也.”

34) 金世弼, 『十清集』 권1, <山陰換鵝亭, 次板上韻九首>; 李荇, 『容齋集』 권7, <次韻魚子游山陰十二詠>.

누런 달밤의 이벤트가 산음의 정기적인 풍류로 고착화된 가능성을 암시한다. 조선 후기 채제공과 徐命瑞 등은 시를 통해 선유를 기약하기도 하였다.³⁵⁾ 경호의 풍류가 산음의 역사와 함께 계승되었음을 증명하니, 어득강의 〈산음십이영〉에서 촉발된 결과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4. 선대의 기록을 전승한 獨女巖

조선 전기 산음의 대표적인 유적 가운데 獨女城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산음현」 〈고적〉에 “독녀성은 고을 서쪽 27리에 있다. 돌로 쌓았고 둘레는 1,730척이다. 시냇물이 있다. 지금은 모두 퇴락해 무너졌다.”라고 제시한 곳이다.³⁶⁾ 독녀성은 끝내 수축되지 않고 유적으로 남아있지만 그 이름은 살아남아 전하였다. 근현대에 제작된 『山淸郡誌』에서도 독녀성의 존재가 나타난다.³⁷⁾

어득강은 〈산음십이영〉 8수에서 獨女尋仙을 읊었고 이는 독녀성과 함께 유래한 獨女巖을 두고 지은 작품이다.

三峯森戟削,	세 봉우리 늘어선 창처럼 뽕족하니
獨女露城稜.	독녀암이 성 모서리에 드러나 있구나.
日日樓中望,	매일매일 누각 안에서 바라보노니
躋攀記我曾.	일찍이 부여잡고 오른 나를 기억하리. ³⁸⁾

어득강이 지은 독녀심선으로 독녀성에 자리한 독녀암을 읊었다. 세주에 “烏石岡 서쪽에 石城의 터가 있으니 세속에서 일컫기를 독녀암이라 한다. 예전에 어떤 獨女가 도를 연마해 허공으로 날아갔다.”라고 하였

35) 蔡濟恭, 『樊巖集』 권3, 〈幽事〉; 徐命瑞, 『晚翁集』 권1, 〈換鵝亭呼韻〉.

3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1 慶尙道, 「山陰縣」, 〈古跡〉, “獨女城: 在縣西二十七里, 石築, 周一千七百三十尺. 有溪泉, 今皆頽圯.”

37) 李鍾雷, 『山淸郡誌』 舊篇[誌], 「古蹟」, “獨女城: 在縣西二十里. 石築, 周一千七百三十尺, 有溪川, 今皆頽圯.”

38) 魚得江, 『灌圃詩集』, 〈山陰十二詠〉 8수.

다.³⁹⁾ 시문의 내용을 보건대 어득강은 일전에 이곳을 한 번 올랐던 듯 하고 이를 선녀를 찾는 행위로 그려낸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독녀암은 함양독바위란 이름으로 전하고 그 모습 또한 어득강이 묘사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독녀암은 본래 金宗直(1431~1492)에 의해 거론된 명승이다. 김종직은 咸陽郡守에 부임한 것을 계기로 1472년(성종 3) 여름 두류산을 유람한 뒤 기행문을 저술했다. 조선시대 지리산 유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품이다.

김종직은 유람의 첫날 독녀암에 올랐고 이와 관련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新湫庵을 찾으니 승려는 없고 또한 뾰족한 절벽을 등졌다. 암자 동북쪽에 바위가 있어 독녀암이라 한다. 다섯 가지가 늘어서 있고 높이는 모두 천여 길이다. 法宗이 말했다. “뜰기에 어떤 한 부인이 바위 사이에 돌을 쌓아 홀로 그 안에 살며 도를 닦고 하늘로 올라가 부른다고 합니다.” 돌을 쌓은 곳이 여전히 남아 있고 잣나무가 바위 중턱에서 자란다. 오르려 하는 자는 나무 사다리를 놓고 그 잣나무를 붙잡아 바위틈을 빙빙 돌아서 배와 등이 모두 쓸린 연후에야 그 정상에 이른다. 그러나 목숨을 걸지 못하는 자는 오를 수 없다. 수행하는 아전 玉崑聳山이 올라서 발을 구르고 손을 휘둘렀다. 나는 일찍이 산음을 왕래하며 이 바위를 본 적이 있다. 여러 봉우리와 더불어 뾰족하게 손아 마치 천연의 기둥 같았다. 지금 몸소 이 땅에 걸터앉으니 모골이 송연하고 두려워 내가 아닌 것 같았다.⁴⁰⁾

김종직이 독녀암에 오른 과정이 자세하다. 어득강보다 앞선 기록으로 독녀암의 유람을 개창한 의의를 지닌다. 김종직은 이때 유람에서 많은

39) 魚得江, 『灌圃詩集』, <山陰十二詠> 8수 獨女尋仙[烏石岡西有石城址, 俗稱獨女岩, 古有獨女, 鍊道沖空.]

40) 金宗直, 『佔畢齋文集』 권2, <遊頭流錄>, “訪新湫, 無僧, 亦負峭壁, 菴東北有巖, 曰獨女. 五條離立, 高皆千餘尺. 宗云: “聞有一婦人, 累石巖間, 獨棲其中, 鍊道沖空, 故爲號云.” 所累石猶存, 栢生巖腰, 欲上者, 梯木挽其栢, 廻繞巖闕, 背腹俱盪磨, 然後達其頂, 然不能辦命者, 不能上. 從吏玉崑聳山, 能上而超足麾手. 予嘗往來山陰, 望見是巖, 與諸峯角出, 若柱天然, 今而身跨茲地, 毛骨慄然, 恍疑非我也.”

감흥을 느꼈고 독녀암의 지세를 따로 시를 지어 언급하기도 했다.⁴¹⁾

독녀암은 이후 지리산 유람기에서 獨女峰 등으로 기록되었다.⁴²⁾ 김중직의 영향에 따른 결과로 짐작된다. 成海應은 호남의 산수 가운데 지리산 유적으로 독녀암을 거론하였으니 이 또한 김중직에 기원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⁴³⁾ 물론, 어득강이 〈산음십이영〉에 독녀암을 제재로 삼은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어득강은 세주에서 세속의 목소리를 빌었지만 결국 김중직이 법종의 말을 전해 듣고 기록한 문장을 그대로 전제했다. 사실상 김중직의 기록에 의거했음을 천명한 결과이다. 독녀성과 함께 독녀암이 기억된 데에 어득강의 공로가 작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이는 어득강이 사림과 선현과 노선을 함께하고 있음을 공언하는 학문적 연원을 제시한다.

5. 왕릉의 역사 고증 시도

지금의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에 「전구형왕릉」이란 돌무덤이 전한다. 伽倻 제10대 仇衡王의 왕릉이라 전하는 곳으로 앞에 ‘전’은 세속에 전한다는 의미를 취한 결과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산음현」 〈山川〉 王山の 기사에, “왕산은 고을 서쪽 10리에 있다. 산중에 돌을 포개 만든 두덕이 있고 사면은 모두 층계로 되었으며 왕릉이라는 전설이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⁴⁴⁾ 현재 이러한 역사성에 근거해 전구형왕릉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구형왕은 가야의 마지막 왕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것처럼 이는 애초부터 구형왕의 무덤이라 회자되지 않았다.

41) 金宗直, 『佔畢齋集』 권10, 〈馬川村中, 記所[時姪康伯珍兄弟與都訓導卞進士等, 遊智異山]〉.

42) 梁大樸, 『靑溪集』 권4, 〈頭流山紀行錄〉, “少年臺稍下, 又有獨女峯, 峯形突起, 無與爲伍也.”

43) 成海應, 『研經齋全集』 권51 山水記[下], 〈記湖南山水〉.

4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1 慶尙道, 「山陰縣」, 〈山川〉, “王山: 在縣西十里, 山中累石爲丘, 四面皆有層級, 俗傳王陵云.”

어득강은 <산음십이영> 11수 王山弔陵이란 제목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아 시를 남겼다.

疊石爲陵制,	돌을 쌓아 왕릉의 제도 삼았건만
碑無記代年.	비석으로 연대를 기록하지 않았네.
杜鵑猶再拜,	杜鵑은 여전히 재배하며 조문하건만
弓劒尙依然.	활과 검의 자취는 오히려 아득하구나. ⁴⁵⁾

어득강은 비석조차 전하지 않아 유래를 알 수 없는 왕릉을 두고 시를 지었다. 4구의 활과 검[弓劒]은 黃帝의 무덤과 관련한 고사이다. 황제가 신선이 되어 날아가고 산이 무너져 무덤을 보니 시신은 사라지고 ‘궁검’과 가족신만 남았다는 고사가 전한다. 어득강은 세주를 달아 “고을과 거리가 10리 되는 곳에 쌓인 돌을 4층으로 쌓으니 세속에서 왕릉이라 한다. 新羅 眞平王이 함양으로 避位했을 때의 일이다.”라고 하였다.⁴⁶⁾ 신라 진평왕과 관련한 고적이라 추정한 것으로 나름의 고증을 시도했다고 할 만하다.

이곳이 구형왕의 유허로 논의된 것은 18세기 무렵이다. 趙鎭寬은 <山淸首露王廟碑銘>의 서문에서 그 유래를 밝혔다. 이곳을 예로부터 大王陵이라 불렀고 지난해 가뭄으로 지역 인사들이 비를 빌자 효험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에 王山寺의 승려가 내용을 찾아보니 이름난 승려 坦瑛이 기록한 내용에 왕산사는 구형왕의 水晶宮으로 왕이 이곳에서 손위하고 장사지냈다는 기록이 확인되었다고 한다.⁴⁷⁾ 예로부터 왕산이라 하고 왕산사가 자리한 데에서 구형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도출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李學達(1770~1835)는 『嶺南樂府』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45) 魚得江, 『灌圃詩集』, <山陰十二詠> 11수 王山弔陵.

46) 魚得江, 『灌圃詩集』, <山陰十二詠> 11수 王山弔陵. [去縣十里, 累石四層, 俗號王陵, 新羅眞平王避位咸陽時事也.]

47) 趙鎭寬, 『柯汀遺稿』 권7, <山淸首露王廟碑銘[并序]>.

신라 法興王 19년(532) 金官國主 金仇亥가 왕비 및 세 아들과 함께 국고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했다. 왕은 손님의 예로 대접하고 그 나라를 식읍으로 삼았으며 아들은 무력으로 벼슬이 大角干에 이르렀다. 승려 坦瑛의 <王山寺記>를 살펴보니 山陽縣(지금의 산청현)의 서쪽에 산이 있어 王山이라 하고 절은 王寺라고 한다. 위에 王臺가 있고 아래에 王陵이 있다. 절은 본왕의 水晶宮이고 능은 바로 가락 제10대손 구형왕이 묻힌 玄宮이다. 蕭梁 大統 8년(542) 신라 법흥왕이 가락으로 쳐들어오자 가락 구형왕이 차마 토지와 백성들을 상하게 하지 못해 신라에 나라를 양위하고 항복하여 金官郡都督이 되었다. 훗날 그 식읍을 아울러 버린 뒤 이곳으로 와서 살았고 죽어서 장사지냈다. 지금 산에 돌을 쌓아 언덕을 만들었으니 세속에 전하기를 왕릉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다.⁴⁸⁾

이학규가 기록한 구형왕릉과 관련한 내용이다. 역시 승려 탄영의 기록에 근거하여 구형왕의 무덤이란 설이 확립된 정황을 볼 수 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탄영이란 승려의 기록에 대한 문제이다. 탄영이 지은 <왕산사기>는 대략 시기상 17세기에 해당한다. 탄영이 어떠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구형왕의 무덤이라 기록하였는지 자세하지 않다. 오늘날 구형왕의 무덤에 대한 진위는 이러한 기록에 근거하여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득강 대에 왕릉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어득강은 이미 세속에 전하는 이야기와 역사적 고증을 통해 나름 진평왕 대의 무덤이 아닐까 추정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구형왕과 관련한 가장 이른 검증의 기록이자 당대 지역의 고적에 대한 어득강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산음십이영>이 지닌 문화사적 가치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48) 李學達, 『洛下生集』 책6 [嶺南樂府], 「仇衡王」, “新羅法興王十九年,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 以國帑寶物來降. 王待以賓禮, 以其國爲食邑, 子武力仕至大角干. 按釋坦瑛王山寺記, 山陽[今山淸縣]縣之西, 有山曰王山, 寺曰王寺, 上有王臺, 下有王陵. 寺本王水晶宮, 陵乃駕洛第十葉仇衡王所瘞之玄宮也. 蕭梁大統八年, 新羅法興王來攻于駕洛, 駕洛仇衡王, 不忍以土地傷民, 遜國于新羅, 降爲金官郡都督. 後并其食邑而舍之, 來居于此, 因卒而葬之. 今山中累石爲邱, 俗傳王陵者是也.”

6. 세속의 설화에 근거한 智谷寺

智谷寺는 본래 통일신라시대에 지어진 사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1016년(고려 현종 7) 禮部尙書 孫夢周가 지은 慧月과 眞觀의 비가 있었다고 하였다.⁴⁹⁾ 그 존재는 조선 후기에도 확인되니,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며 산음을 대표하는 사찰로 기능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지금의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에 그 유허가 남아 자취가 보존되어 있고 발굴조사를 통해 과거의 유허를 추적하는 시도가 이루어진 곳이다.

어득강은 <산음십이영> 12수에서 지곡사에 주목했다. 智谷尋碑라 하여 몽월과 진관의 행적을 읊은 비석을 찾아 시를 지었다.

寺古空遺址,	절 오래되고 옛 자취 텅 비어
龜趺半已苔.	거북 받침돌 거의 이끼에 덮였구나.
公餘動詩興,	공무 여가에 詩興을 일으키니
不獨看碑來.	그저 비석만 보러 온 것 아니라네. ⁵⁰⁾

어득강은 지곡사를 찾아 혜월과 진관의 비석을 보았다. 세월이 흘러 절은 공허하고 비석도 그저 방치된 모습이다. 다만 그 분위기는 고즈넉함이 가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득강은 이를 마주하고 시흥을 주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시의 세주에 “楡山 북쪽에 절이 있으니 지곡사라 한다. 東西에 비석이 있고 곁에 매화 한 그루가 있어 내가 學士梅로 이름 지었다.”라는 내용이 보인다.⁵¹⁾ 봄날 지곡사를 유람하며 매화를 감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득강이 지곡사의 매화를 두고 학사매라 이름 지은 것은 손몽주를 기억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손몽주는 1010년(고려 현종 원년) 4월

4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1 慶尙道, <佛宇>, “智谷寺: 在智異山, 有高麗禮部尙書孫夢周所撰僧慧月及眞觀二碑.”

50) 魚得江, 『灌圃詩集』, <山陰十二詠> 12수 智谷尋碑.

51) 魚得江, 『灌圃詩集』, <山陰十二詠> 12수 智谷尋碑 [楡山北有寺曰智谷, 東西有碑, 旁有一梅, 余名之以學士梅]

知貢舉로 있었고 1014년(고려 현종 5) 9월 2일 翰林學士 등에 임명된 인물이다. 보통 지공거를 학사라 불렀거니와 한림학사의 벼슬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곡사의 유허를 통해 선현을 추억하고자 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학사매의 명명을 통해 문화사적 자취를 더한 결과가 드러난다.

이러한 지곡사는 폐치되지 않고 한동안 역사를 이어갔다. 조선 후기 孫命來(1664~1722)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方丈山 동쪽 가지는 會稽縣의 유산으로 혹은 箕山이라 한다. 산의 아래 鏡湖水가 있고 물 서쪽 산 중턱에 바로 사찰이 있으니 실로 宋太宗 때 고려 光宗大王의 스승 應眞이 거거하던 곳이다. 창건과 계승한 사적은 太虛翁 敬一이 몹시 자세하게 기록하여 생략할 만하다. 시내를 구불구불 따라 골짜기로 들어서면 제1교가 洗塵橋이다. 옛날에 외나무다리가 있었으나 돌로 바꾸어 물 마시는 교룡의 형상이다. 해는 병신년(1716) 절의 승려 處洞이 그 일을 이루고 현감 洪九采 군이 이를 銘으로 적었다. 4년이 지나 坦澄了惠가 여러 檀越에게 기부를 받아 제2교를 이어 중수했다. 淸心橋가 正樓 바깥 杏臺 앞에 있다. 처형이 다시 別坐로 그 역사를 일으키고 曇色이 도왔다. 하늘 높이 굽이진 형세에 포개고 쌓아 같고 깎은 공력은 세진 교와 같았지만 그 공력을 더욱 들여 세밀하게 했다.⁵²⁾

손명래가 기록한 지곡사의 다리와 관련한 기사이다. 洗塵橋에 이어 청심교가 건립된 사실을 기념했다. 지곡사의 승려들이 힘써 제도를 더한 과정이 생생하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도 지곡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 지곡사는 조선 후기 산음의 중요한 사찰로 기능을 이어갔다. 조식은 오건 등과 지곡사에서 만나 역사적인 장면을 이루었고, 金誠一은

52) 孫命來, 『昌舍集』 권5, 〈山陰智谷寺淸心橋碑銘[并序]〉, “方丈山東支, 爲會稽縣之楡山, 或曰箕山. 山之下爲鏡湖水, 水西山腹, 寔有祇園, 實宋太宗時, 高麗光宗大王之師應眞住錫處也. 朔繼事蹟, 太虛翁敬一記識甚悉, 可略也. 亂溪而入洞, 第一橋曰洗塵, 古有約, 易之以石, 爲飲虹狀. 歲在丙申, 寺僧處洞幹其事, 縣監洪君九采是爲銘. 越四年, 坦澄了惠募緣諸檀越, 續修第二橋, 淸心在正樓外杏臺前, 洞也又以別坐董厥役, 而曇色佐之, 穹高彎紆之勢, 疊累礧斷之功, 如洗塵而稍致其工緻焉.”

임진왜란 당시 이곳에서 염초를 굽게 하여 왜적의 침입에 맞서고자 하였다.⁵³⁾ 金奉祖·金應祖 형제가 이곳에서 독서하며 吳長에게 주역을 배운 사실도 보인다.⁵⁴⁾ 산음의 영역을 넘어 경상우도 가운데 단연 주목할 만한 사찰임을 짐작하게 한다. 다만 어득강이 명명한 학사매의 자취는 이후 확인되지 않는다. 매화와 관련한 내용이 전연 보이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말라죽은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지곡사의 역사에 어득강의 자취가 전하는 사실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하다. <산음십이영>이 이론 문화적 성취에 드러난 또 하나의 단면이다.

IV. 맺음말

어득강은 조선 전기 문학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이룬 시인의 한 사람이다. 평생의 저작을 담은 『관포시집』이 전하고 이에 주목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그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외에도 누정의 창건을 기념한 작품이나 잡영 형태의 연작시를 다수 남겼다. 후대 문인들이 이에 다수 차운하며 어득강의 한시는 생명력을 얻었고 이러한 결과 문화사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 글에서는 여럿 가운데 <산음십이영>에 주목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어득강은 산음현감을 지내던 시절 <산음십이영>을 지어 경물을 노래했다. 스스로 창건한 건물, 지명의 개명, 명승의 전승, 역사의 고증 등을 주제로 삼아 후대 문인들이 산음을 기억하는 바탕을 마련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외에도 辰巖을 龍巖으로 개명하고, 柱笏臺를 명명한 등의 여타 모습이 확인되니 <산음십이영>의 의의는 이상에 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단지 하나의 작품이지만 어득강이 지닌 역사적 위

53) 『德溪集』 德溪年譜 권1, 「德溪先生年譜」; 李魯, 『松巖集』 권4, 「鶴峯金先生龍蛇事蹟 [文殊志]」.

54) 『鶴湖集』 鶴湖先生文集年譜, 「鶴湖先生年譜」.

상이 명확하게 포착된다고 하겠다.

다만 이상의 결과는 결국 산음이란 지역에 국한된 한계를 지닌다. 어득강의 평생 저작은 저마다 지대한 의미를 지니므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다른 이들과 주고받은 시문 또한 간과할 수 없으니, 이는 어득강의 교유와 더불어 활동 양상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물론, 이는 어득강 개인의 연구 주제로 귀결되지 못한 한계를 내재하지만 역사에서 그를 기억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이기에 충분하다. 어득강의 연구가 다양한 방면에서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 0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2월 0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김승룡,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 시세계의 한 국면」, 『한국고전연구』 2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 정우락,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 시에 나타난 ‘물’의 상상력」, 『남명학』 22, 남명학연구원, 2017.
- 안대회, 「조선 후기 명승 자료에 나타난 경관평가」, 『동방학지』 187,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2019.
- 이종묵, 「경호강의 명승」, 『선비문화』 38, 남명학연구원, 2021.
- 최재남, 「魚得江의 雙溪八詠과 그 차운시에 대하여」, 『지역문화연구』 1, 경남부산지역문화회, 1997.
- , 「어득강의 삶과 시의 특성에 대한 일고」, 『한국한시연구』 11, 한국한시학회, 2003.

Abstract

The Cultural Space of <Saneumsipyiyoung(山陰十二詠)> Named by the Eo, Deuk-Gang(魚得江)

Kim, Se-ho

Eo, Deuk-Gang(1470-1550) is one of the poets who achieved remarkable achievements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His status can be confirmed through several preceding studies about a collection of Gwanposijip containing lifelong works. In particular, in the poem written by Eo, Deuk-Gang, many pieces are secured to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This is likely to have been created at the request of most of the poets of the time. In this article, we tried to confirm the cultur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Eo, Deuk-Gang's poems through <Saneumsipyiyoung(山陰十二詠)>, written during Sanumhyeongam(山陰縣監).

Eo, Deuk-Gang's <Saneumsipyiyoung> is a series of poems written for 12 landscape objects of Saneum. In addition to scenic spots such as Saneum(山陰)'s representative nature(山川), Nujeong(樓亭), and Historical sites(古跡), the space he paid attention to based on his standards was used as a sanction. In this article, attention was paid to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Saneumsipyiyoung>. Looking at the contents, various cases related to the building he founded, changing name the nearby village, the enjoyment of a scenic spot in the Saneum area, the transmission and dissemination of records of Seonhyeon(先賢), the historical history of remains, and the naming of cultural spaces are confirmed.

<Saneumsipyiyoung> was repeatedly written by later writers due to Jegeumdang(製錦堂) and Hwanajeong(換鵲亭). It has been discussed as a representative work that determines the cultural space of the Saneum area. Although it is only one work, it can be seen that the historical status of Eo, Deuk-Gang is revealed. The value of Eo, Deuk-Gang's work is evenly revealed in several positions and <Saneumsipyiyoung>. Of course, although this is just one, it is sufficient to justify remembering him in history. I hope that Eo, Deuk-Gang's research will make progress in more diverse fields in the future.

keywords :

Jegeumdang, Gyeongho, Doknyeoam, Guhyeongwangneung, Jigoksa